

2024학년도 재외국민 면접시험

(의학적 인성/의예과)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시간 10분입니다.

【문제 2】 다음의 각 제시문을 질문에 답하시오.

<가>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누적 적립금은 약 24조원에 달하지만,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된 의료비 지출에 비해 경제 상황, 저출산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의 재정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 완벽한 의료지원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제공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나> 신약이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을 말한다. 기존 약물에 비해 독창성과 효과, 안정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우월성을 갖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불가능했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해주는 특허상품으로 지적재산권을 통해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발굴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으로 이어지는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조원의 비용과 10년이라는 기간이 투입된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세계 30대 제약사가 연구개발에 총 1500억 달러를 들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매출액의 21%에 해당한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다> 암이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개발된 최근의 신약들은 매우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이지만, 가격 또한 엄청난 경우가 많다. 1회 투여 비용이 수백만원부터 20억에 이르기기도 한다.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신약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전에는 돈이 있어도 약이 없어서 건강과 생명을 잃어야 했다면, 이제는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들을 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에서도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는 백신 및 치료제 공급에 큰 차이를 보였고, 이는 사망자수와 직결되었다.

<라> 굳이 값비싼 신약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어딘가에는 아주 적은 금액조차 낼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초고가 신약에 대한 보험혜택을 이들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 2-1】 한정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시오.

【문제 2-2】 【문제 2-1】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문 <다>와 <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출처]

참고자료	도서(자료)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신문기사 및 자료	‘2년 연속 흑자’ 여도 낙관할 수 없는 건강보험 재정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491	김은영	청년의사	2023	
	약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30개 제약사 신약개발 비용 평균 48억 달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037	김자연	의학신문	2021	
	수억원대 초고가 의약품 시대 열렸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951	김상일	의학신문	2022	

[출제 의도]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의사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지만 의료자원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의해 국민의 건강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다수의 건강을 지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인구집단 전체에 대해 효율적일 수 있지만,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또한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약의 개발로 인해 난치성 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초고가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의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료혜택을 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문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가 될 지원자들이 인구집단 또는 국가 수준에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접근하는지, 경제적 불평등과 의료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통해 의학적 인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문항 해설]

제시문 <가>에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성을 언급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신약이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통해 부를 창출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이 집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초고가 신약으로 인해 일어나는 의료불균형을 제시하고 제시문 <라>에서는 신약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을 제시한다.

[추가문항]

1. 답변 내용에 대한 반문이 가능함. 예를 들어 “환자수가 많은 질병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할 경우 “지원자가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의료 혜택의 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나요?” 라거나 “심각한 질환부터 지원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할 경우 “그곳에 투입될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
2. 답변의 내용이 너무 짧은 경우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졸업 후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원주에 남을 계획이 있나요?” 등을 추가할 수 있음

(문제 2-1 평가기준)

정답이 없는 문항들로, 지원자의 답변 내용 보다는 그 이유가 중요함

【문제 2-1】

상 :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언급하며 반문에 대한 보완책까지 제시할 수 있음

중 :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나 이유가 부족함

하 :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함

(문제 2-2 평가기준)

상 : 【문제 2-1】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르는 의견을 제시함

중 :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문제 2-1】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음

하 : 딜레마적인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함